



오륙도 칼럼 김규영 아름다운 남구 지속발전위원회 회장

도심 텃밭 속 '반자연인' 이 진짜 신선이 아닐까

평생 교직의 수레바퀴 일상 속에서 우연히 시작 된 일이었다. 옹호동 봉오리산 기슭에 새로 터 잡은 예문여고에서였다. 동료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농촌체험학습장' 운영이었다.

사실 지명(知命)이 되도록 텃밭이나 농사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직장에 매진하는 것이 본분이고 인생의 전부여서 결눈질할 새가 없었다. 농사가 싫었고 땀방에 노역과 벌레가 더욱 싫었다. 그것이 예문여고 부임 후 주변의 환경과 동네 어른들의 인근 텃밭 경작에 이상스레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다. 학교 울타리 밖 작은 유희지에 몇 평을 마련했다. 가장 쉽다는 첫 열무씨를 뿌려본 것이다. 뿌린 대로 푸른 새싹이 돌아 올랐다. 이 때부터 모르던 땅속의 벌레들을 만났다. 나비와 많은 곤충들을 보았다. 햇빛의 고귀함, 물과 비의 소중한, 공기의 청정함, 잡초의 끈질김, 땅과 바람의 달콤함도 맛보게 되었다. 바로 오십 평생에 자연의 맛을 처음 맛본 셈

이었다. 그간 대수롭지 않던 내 주변의 생명의 경이로움과 자연의 신비한 아름다움들이 내 몸속으로 성큼 들어온 놀라운 계기였다. 텃밭 사랑을 시작하며 가장 큰 발견은 벌레들과의 친화였다. 그간 무관심했던 곤충과 자연의 생명체들과 공생공존이 바로 나의 행복한 삶이었다. 그들이 살아있는 보금자리야말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그래서 보호, 보전해야 되는 소중한 귀금속들이 자연 속의 벌레와 곤충들이었다.

텃밭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연의 최소 단위 면적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여유가 생길수록 텃밭 갖기를 원하고 동경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의 뜰이나, 집안의 한켠에 손바닥만한 공간 배치나 화분 이용 등을 생각해 볼 것이다. 작은 관심과 열정만 있으면 살아있는 싱싱한 먹거리를 직접 얻을 수도 있다. 더구나 주말 농장이나 인근에 작은 텃밭이 있다면 건강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이미 가진 것이리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텃밭의 명당이다.

많은 시청자들의 로망(?) 같은 자연인의 TV프로그램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연출의 성공이다. 특별한 완전 자연인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슴 속에 심어놓은 원시의 이상이 다. 영상의 합성이다. 보통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반(半)자연인' 이 되는 것이다. 일상적인 도시 생활 속에서 문화와 의료 등의 혜택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주말이나 시간 여유 때는 텃밭 생활에 동화되는 것이다. 도시와 전원을 오가며 누리는 지혜가 진정한 도시 자연인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신선이 되는 것이다. 온가족이 모두 행복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흙사랑의 모델이다. 두서너 평이면 어렵고 다랭이 비탈밭이면 또 어려울 것이다. 내 땅이 아니라도 잠시 임대나 지인의 선처, 권유면 더욱 좋은 것이리라.

퇴임 후 8년차, 제2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곳은 운 좋게 신선대 계곡이다. 칠수를 흠뻑 넘기고 200여 평 공동 텃밭에 풀과 짚이 흐른다. 주변 지인들의 귀한 인연과 배려로 작은 농막 겸 화실, 서재까지 준비되어 흐트럽

뿐이다. 특히 신선이 놀다갔다는 계곡의 품에 눈앞의 그림 같은 오륙도, 동해바다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장관이다. 하루의 모습이 늘 변화무쌍하다. 새소리와 숲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하늘과 바다 뿐이다. 여름밤이면 여기도 이기대처럼 반딧불이가 가득 서식하고 있다. 요즘은 매화에 이어 진달래, 산벚꽃이 평평 타진다.

가장 기본 농사가 되는 씨앗 이용의 염채소류(열무, 상추, 썩다, 깻잎 등)를 시작으로 모종을 이용하는 열매채소류(오이, 토마토, 가지, 애호박 등)를 심어보고 끝단계인 뿌리채소류(감자, 고구마, 도라지, 더덕 등)를 경작하면 김장용 배추와 무는 쉽게 해결 될 것이다. 내 땅이라면 귀한 약초나 유실수가 건강과 달콤한 과일까지 선물해 준다.

오늘도 이른 아침 출근하듯 인근 텃밭에 도착하여 들남이들의 밭을 챙긴다. 전체 밭을 돌아보며 밤새 인사를 나누고 채소들과 대화를 가져본다. 노역할 한나절 계획을 점검하는 행복의 시간이다. 창문안의 오륙도가 평화와 안정의 커피잔을 들고 들어선다. 20



신선대의 농막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오륙도.

여까지 채소가 텃밭의 찬가를 부르는 소리가 파도소리 따라 들리는 듯하다.

한평의 텃밭에서 100평의 행복을 심고 가꾸다보면 지금 저도 꽃길 인생인 것을, 내가 신선으로 살다가는 것이다. 텃밭 만세, 신선대,오륙도 만만세.

곽태욱의 바람고개 이야기II

이기대 두 기생은 '프리랜서'였을까

이기대는 임진왜란 당시 수영성의 관기인 두 기생이 술 취한 왜장을 끌어안고 꽃다운 생을 마감한 전설이 서려 있다. 진주의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해서 생을 마감한 이야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기대는 두 명의 기생이 등장하고 그 장소는 바닷가이다. 게다가 두 기생이 반농반어의 옹호마을(현 옹호동 성묘병원 맞은편)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바느질이라든지 물때 헤아리는 법, 약초 효능 등을 가르쳤다는 점도 다르다. 또 하나는 두 기생의 이름과 나이다. 구전에 따르면 언니인 '남이'가 19살, 동생인 '경아'가 17살 때 수영성에 무혈입성한 왜군의 승전 직후에 끌려나가 최후를 맞는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그녀들의 이름이 웬지 현대적인 어감으로 읽힌다. 또 관기라는 신분임에도 옹호마을 민가에서 살았다. 무려 400여 년 전의 일이나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란 불가능하다. 굳이 참작할 만한 자료를 찾자면, 조선시대 정3품의 한 당상관이 을사시화(1545년) 때 유배당한 뒤 끝내 해배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약 23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기록한 일기나 눈에 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5년여 전의 기록이다.

그는 유배지를 관장하는 목사나 판관, 사림 등이 주최하는 연회에 가끔 초대받았는데, 이 연회에 노옹항, 장비, 탁분야, 옥치, 인금, 속덕, 팔비, 언이 등의 기생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기생 생활을 시작한 황진이, 시인 매창과 홍랑, 이들도 임진왜란 직전 기생련의 러브스토리까지 시작된 것들이다. 이들의 이름에 비해 나이

와 경아라는 이름은 웬지 여염집 구수의 이름처럼 느껴진다. 기생은 재산 축적도 가능했을까? 유몽인(1559-1623년)의 『어우야담』에 중종의 딸 정순옹주와 혼인한 송인(1516~1584년)과 어린 여종 '석개(石介)'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워낙 불품 없고 몹시 추하게 생긴 석개는 일은 안 하고 온종일 노래만 부른다 매를 맞기 일쑤였다. 이런 석개의 재능을 알아본 송인이 정식으로 노래를 배우게 했고, 그 결과 근래 100년 동안 그녀만 한 명창이 없다는 칭송까지 했다. 이후 석개는 권문세가의 연회에 다니며 명창의 진가를 발휘하고 금과 비단 등을 전두가(纏頭)로 받았다. 날마다 전두가 쌓여서 석개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고, 그녀의 딸 '옥생'도 어미 못지않은 명창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전두는 악공이나 기녀, 광대 등이 연회를 마치면 주최자가 주는 수고비다. 궁중이나 관청 등에서 연회가 끝나면 주는 연패(宴幣)와 비슷하다. 이러한 품삯은 그날의 연회를 위해서 고생한 하인들에게도 주었는데, 이를 통칭해서 '행하(行下)'라고도 했다.

한때 양민계급의 여념집 녀자도 교방에 적을 두고 관청의 공적 행사를 병행했다고 한다. 또 집에서 손님을 맞아 기예를 펼쳐 보이고 행하를 받아 생업을 영위했다고도 하는데 관기에 게 노련 투잡을 허용했을까 싶다. 그 어느 쪽이든 이기대의 전설 속 두 기생은 왜장을 끌어안고 바다로 몸을 던진 의로운 꽃이 되기 전까지 옹호마을에서 어느 여염집처럼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소설가, 향토사연구가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목판 위의 예술, 인두화에 빠졌어요”

■ 인두화 작가로 제2 인생 걷는 김승희 씨



인두화는 달궈진 인두로 목판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 장르이다. 나무를 태워 그린다고 하여 영어로는 '우드 버닝(Wood Burning)'으로 불린다. 섬세하고 세밀한 터치로, 음영의 선묘만으로 신세계를 창조하는 인두화는 미술의 한 분야로 대단히 독특하고 아름답다.

김승희 인두화 작가는 2019년 남구청의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인 김만2중 '참살이마을'에서 인두화를 처음 접했다. 과거 취미로 유화를 배웠지만 복잡한 사회생활로 예술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고 있던 차에 우연히 만난 인두화를 통해 잠들었던 재능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참살이 행복마을에서 몇 개월 익힌 인두화를 계기로 이후 한양예술대전 최우수상, 경기북지재단공모전 경기도지사상 등 11차례 크고 작은 상을 받으며 인두화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인두화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김 작가는 오랜 역사를 담은 인두화에 현대적 감각을 담아 회화적 느낌으로 표현하고



김승희 작가가 반년에 걸쳐 완성한 창덕궁의 부용정 인두화 작품.

싶어 한다. 그래서 작품 소재를 주변에 있는 흔한 자연 풍경과 여행, 등산 등 평범한 일상과 이웃들을 담담하게 묘사한다.

지난 3월 15~21일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김 작가의 첫 전시회가 열렸다. 평범했던 그가 인두화 작가로 새로 태어남을 알리는 시작점이 되었다. 전기를 이용한 버닝펜으로 작업은 과거에 비해 한결 수월해졌지만 인두화는 여전히 지난한 작업이다. 완성하는 시간은 작품마다 다르며 10호 이내 소작은 한 달 정도, 50호 이상은 몇 달을 때 달려야 한다. 작가의 작품 중 창덕궁(비원)의 부용정은 반년

넘게 걸린 대작이다. "유화 같은 색채, 그림과는 또 다른 수묵화처럼 흑백으로 표현하면서 때론 펜화처럼 세밀한 기법으로 대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김 작가를 사로잡은 인두화의 매력은 같은 매력이다. 최근 작가 공모 신청에 합격해 자신의 공방을 갖게 김 작가는 "공방에서 더 많은 창작 활동과 인두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예술을 공유하고 싶다"며 미소지었다. 김 작가는 현재 대연3동 행복학습센터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드버닝'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임은옥 명예기자

술보다 진한 수진이네 가족사랑

이웃 수진네는 3대가 모여 사는 가정이다. 수진이 할아버지가 약주를 좀 자주 하셔서 가족 모두가 힘들어 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수진 아빠 부부는 연로한 부친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까 싶어 술이라도 맘 편히 드시게 하자며 노인의 음주에 웬만큼 만류하지 않고 그냥저냥 참고 살았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술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초등학교 1학년인 수진이가 낮에 소주병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아직 사리 분별이 없는 순진한 수진이가 노숙자가 마시다 버린 소주병을 어딘가 가져와서는 "엄마, 이거 할아버지 좋아하는 거니까 할아버지 갖다 줄게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손녀가 잘못 뭘까 큰 충격을 받고는 당장 술을 끊은 것이다. 피

는 술보다(?) 진했던 것이다. 부모님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도록 참아온 수진이의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를 위해 술병을 들고 들어온 손녀 딸의 '효심'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어른의 자식사랑. 이 모두 어우러져 가정의 화목과 평화,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다. 올해 술을 끊거나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운 남구 주민이 있다면 수진이 할아버지의 결단을 떠올려 보면 좋겠다.

남상민(대연동)

남구·분포도서관 4월 행사 다채

남구·분포도서관은 도서관주간(4월 12~18일) 및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포니 하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4월 한달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남구도서관은 '미래 진로 탐색-자녀를 위한 드림 메이커' 등 학부모 특강과 '빙글빙글 낙서 진동 로봇', '알록달록 천연 비누 만들기' 등 초등학생 대상

체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분포도서관은 '학부모 코칭 몰입법과 자기 성장' 등 학부모 특강과 '책 속 평화의 맛을 찾아서', '평화를 담은 캘리그래피' 등 초등학생 대상 체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bsnamgu.go.kr) 참조. 남구도서관 열람실 ☎607-6561 분포도서관 ☎607-3641

4월 추천도서

유아

▷ 굴러굴러 이승범/북극곰



정육식, 소복이 /갈마바람

어린이

▷ 이불 바다 물고기 황성균 글, 이주희 그림/웅진주니어



성인 ▷ 호모 코쿠엔스의 음식이야기 제니 린포드, 엘리스 패들러/파라북스



청소년

▷ 흥미진진 핵의 세계사



▷ 마음아, 넌 누구니 박상미 /한국경제신문



우리지역 일자리 알람판

(2021. 3. 30.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남구노인복지관	대연동	생활지원사(9개월)	1명	03. 30. ~채용시	시급 8,720원	628-1291
대연드림어린이집	대연동	통학차량 운전원	1명	03. 30. ~채용시	월급 850,000원	905-0244
세영식품(주)	대연동	단체급식 조리원	2명	03. 30. ~채용시	시급 8,720원	070-7126-4602
(주)태극산업	대연동	조경사	1명	03. 30. ~채용시	월급 1,900,000원	010-3350-4015
그랜드자연요양병원	대연동	나이트킵 간호사	2명	03. 30. ~채용시	연봉 36,000,000원 ~ 40,000,000원	612-0075
(주)청강종합건설	대연동	건축현장소장	1명	03. 30. ~채용시	월급 3,000,000원 ~ 4,000,000원	747-0451
국동사무기구입사	용당동	분체 도장공	2명	03. 30. ~채용시	시급 8,720원	624-4949
주식회사 마인드플러스	문현동	기타사무원 (중증장애인채용)	5명	03. 30. ~채용시	월급 688,880원	1522-7236
(주)기리기문화원	문현동	교육 훈련 사무원	1명	03. 30. ~채용시	월급 1,822,480원	642-1515
대영면역	대연동	홍서빙원	1명	03. 30. ~채용시	월급 2,300,000원 ~ 2,400,000원	611-0090

* 남구 일자리정보센터 ☎607-4347~8 Fax.607-4349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시고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1. 4. 5. ~ 4. 26. (20일간)
- 열람장소 - 남구청 토지정보과 ☎607-4752~4755 - 남구청 홈페이지, 인사관리 부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 의견제출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방법 : 방문, 팩스, 온라인 제출(인사관리부동산통합민원)
- 개별공시지가 열람 클릭 - 의견서 다운로드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유료광고 접수 4072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